

東슬라브민족의 女性 頭飾에 관한 研究

- 未婚女, 既婚女 中心으로 -

최 수 빈 · 조 우 현*

백러시아 국립 예술 아카데미 ·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Comparative Study of Headgear among the Eastern Slavs"

- Focus on the unmarried and married women -

Su-Bin Choi · Woo-Hyun Cho*

Беларусь Академия Искусств Кафедра истории и теории искусств

Dept. of History & Theory of Arts Belarus Academy of Arts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A comparative and an analysis of the resemblance and the particularity of the women's headgear, which has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each of climate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astern Slavs: the Russians, the Belarusians, and the Ukrainians, those are deeply influenced by the culture of costume of the Scythians which is considered as the origin of the Koreans' culture of costume, is presented in this study.

A well-known Russian ethnographer D. K. Jelenin classifies the women's head gear of the Eastern Slavs as a platok(платок-a kind of scarf), a cheretch(чепец-a kind of skull cap), a shapka(шапка-a kind of hat), and a unmarried women's venetch(девичий венец-a kind of crown) by its structural figure. Those 4 kinds of head gears are the basic head gears of the Eastern Slavic woman. However, the characteristics and the features of the head gears of each nations show us that they have been developed differently not only by the climatic and the geological influences but also by the influence of their historical background. Furthermore, we could realize that the Eastern Slavs had classified a person's social position and a standing in family members by the head gear. The incantational and the religious meanings of the hair styles and the head gears are shown in this paper. For instance, they has been considered that a married woman without a hat is a disgrace, and it even affects to the harvest. Even they believed that a corn styled Russian woman's hat named "Roga" protects a mother and her baby from the evil spirit. It seems that such a ethnographical culture is caused by their own faith of Russian orthodox and a non-Christian ancient religious culture of those regions.

Key Word : The eastern slavs(동슬라브 민족), Headgear(관모)

a platok(платок-a kind of scarf),

a chepetch(чепец-a kind of skull cap),

a shapka(шапка-a kind of hat),

a unmarried women's venetch(девичий венец-a kind of crown)

I. 서론

선행된 연구¹⁾²⁾에 의하면 우리나라복식의 원류를 스키타이의 복식문화에서 찾기도 한다. 일부 스키타이족은 흑해 북쪽연안을 중심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정착하여 동 슬라브 민족 복식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고대 동 슬라브 민족의 복식문화는 고대 한국민족복식문화와 원류를 같이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동 슬라브 민족의 복식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동 슬라브 민족과 함께 발전되어온 그들의 복식문화 중 관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관모는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를 장식하는 의복이다. 머리나 머리카락을 신성시 여기는 동 슬라브 민족은 사회적 위치나 신분별, 성별 및 지역별로 특징적이고 다양한 관모를 변화 발전을 시켰다. 또한 긴 겨울의 혹독한 날씨는 관모의 발전을 이루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동 슬라브 민족복식의 역사는 먼 스키타이 민족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동 슬라브 민족의 역사는 9세기 키예프 공국의 건립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키예프 공국은 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중심으로 형성된 러시아 초기의 강력한 공국이었다. 키예프 공국은 988년 비잔틴 문화와 함께 정교회를 받아들였다. 이후 러시아는 13세기부터 200년간 몽고의 지배를 받았고 몽고로부터 해방된 이후 17세기 중엽 뽀뜨르 황제의

즉위와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된 서유럽의 문물은 복식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동 슬라브 민족 복식의 근대적 연구는 19세기부터 많은 민속학적 자료와 유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세기와 20세기초의 민속복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문헌 및 일러스트자료가 풍부하다. 이것을 기초로 동 슬라브 민족의 여성 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 슬라브족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는 러시아민족만을 가지고 설명될 수 없다. 동 슬라브 민족은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은 각각의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특징이 다르고 이것은 관모에도 반영되어졌다. 또한, 늪지대와 숲지대가 많은 지형이 각각의 민족들을 격리시키고, 강을 교통수단으로 한 상업의 발달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종족간의 문화적 교류와 더불어 강을 중심으로 한 민족간의 문화 교류를 이루어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간의 문화의 고유성과 특징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 세 민족의 관모의 고유성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다양한 기후와 풍토이다. 유라시아 지역에 넓게 정착한 동 슬라브 민족은 지역마다 특유의 기후와 풍토를 가지고 있다. 비교적 따뜻한 우크라이나의 기후와 바다 마져 얼어버리는 혹독한 추위의 북 러시아 지방의 기후는 관모의 형태뿐만이 아닌 관모를 만드는 재료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1) 김 문자. 한국복식 문화의 원류, 민족문화사, 1994, pp.9-10.

2) 崔仙伊, 上代 東北 아시아의 冠帽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1993.

주었다.

러시아,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동 슬라브 민족이며 또한 서로 다른 자극어를 가지고 있는 타민족이다. 이런 독특한 문화 발전의 환경 속에, 확고한 세 민족간의 개별성을 따라, 동 슬라브 민족의 여성 관모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의 기후풍토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화 발전된 여성 관모간의 유사성과 함께 개별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복식학자들과 문화사학자들 그리고 민속학자들의 연구를 수록한 위 삼국의 문헌과 모스크바, 민스크 및 레닌그라드에 소재한 민속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속복식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II. 역사적 배경

동 슬라브 민족은 유라시아에 걸쳐있는 스텝 지역과 초원지역에 거주하며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와 함께 변화, 발전되었다. 이 스텝 지역과 초원 지역의 문화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쇠퇴는 여러 민족의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변화에 기인된다.

고대 유라시아 초원과 스텝지대의 문화를 주도한 자들은 흑해연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스키타이민족이었다. 스키타이는 주로 내륙 유라시아 일대에서 활약하던 古代北方遊牧騎馬民族 전체를 지칭하며 협의로는 B.C. 7-3세기에 걸쳐 흑해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遊牧騎馬民族을 지칭한다. 스키타이 제국의 문화는 B.C. 6 세기부터 B.C. 3 세기에 걸쳐 서

쪽으로는 도나우 하류지역인 헝가리에서부터 러시아와 남 시베리아, 키르키즈 초원, 알타이 산맥과 동으로는 몽고고원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³⁾.

한편, 동부와 남동부의 슬라브 민족의 물질문화는 유라시아 지역의 투르크 - 몽고 - 이란 및 여러 민족의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선행된 연구에 의하면 몽고침략이후 러시아의 겔옷과 남자 관모와 신발 등에 몽고 복식의 유입을 볼 수 있다⁴⁾.

구체적으로 러시아 전통 복식의 역사는 크게 4가지 시대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스키포 -사르마트스키(скифо-сарматский) 영향권 시대, 둘째 노르만(норманский)의 영향권 시대, 셋째 비잔틴(византинский)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기스칸을 앞세운 몽골 - 타타르(монголо-татарский)의 침략과 지배에 의해 이루어진 몽골(монгольский) - 타타르(татарский) 영향권 시대로 나뉘어진다.⁵⁾ 러시아의 복식은 역사적 시대를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변화된 모습은 이전 시대와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 예로 10세기 중엽 기독교와 함께 동 슬라브 민족들은 비잔틴 문화와 복식을 받아들여 11세기 중엽에는 벌써 거의 모든 동 슬라브 민족들이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복식을 착용하였다.⁶⁾

11-12세기, 키예프 공국의 쇠퇴와 함께 몽골 - 타타르의 침략으로 고대 단일 민족이었던 동 슬라브 민족은 남쪽 숲 지대에 살던 민족과 섞이며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 민족을 형성하였다.⁷⁾ 이것은 러시아,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민족의 관모의 개별성이 몽골-타타르의 침략이후에 더욱더

3) 김 문자, 한국 복식문화의 원류, 민족문화사, 1994, pp.11-23.

4) Лебедева Н. Л., Маслова Г. С. Русская крестьянская одежда XIX - начала XX века как материал к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народа// Русские историко -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атлас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жилища и костюма (у крашение крестьянских домов и одежды), Москва, 1970, с. 29-30.

5) Коммиссаржевский Ф. Ф. Костюм, М., 1911. p.446.

6) Ibid

7) Токарев С. А., Этнография СССР, изд.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 1958. p.26.

명확히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민족의 개별성이 더욱 드러나는 13세기 이후, 20세기 초 위 세 민족의 여성관모를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관모는 수발형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수발형태에 따라 관모의 모양이 발전되기도 하고 관모의 모양에 따라 수발형태가 결정되기도 한다. 1000년간 지속된 러시아 정교회의 종교적 배경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동 슬라브 민족의 기혼여성은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은 그 여성의 큰 수치로 여겨졌다⁹⁾. 이에 따라 기혼녀 두식의 발전은 수발형태보다 관모의 발전에 치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머리카락에 관한 신비한 믿음은 결혼의식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수발형태를 바꾸는 특별한 의식을 만들었다. 미혼녀의 수발형태는 현재의 연구에 의하면 13세기까지 피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¹⁰⁾ 다른 연구에 의하면 민스크 교외의 12세기 미혼녀의 고분에서 변발머리채가 발견되었다 한다¹¹⁾. 10세기 비잔틴에서도 변발을 하였다는 자료가 있으므로 비잔틴의 영향권 하에 있던 동 슬라브민족의 수발형태에서 변발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13세기까지 동 슬라브족의 보편적인 수발양식은 피발에 둥근 머리테를 머리에 써서 채발을 정리한 형태였다. 미혼녀의 피발은 19세기까지 이어져왔으나, 13세기 이후 변발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지방 미혼녀의 변발은 다양한 모양으로 발전하였고 지방마다 독특한 변발의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동 슬라브 기혼녀들은 미혼녀와 달리 반드시 머

리카락을 가려야 했지만 수발형태도 미혼녀의 수발형태와 구분되었다. 기본적인 형태는 모자에 담을 수 있게 단정히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간의 차이가 있다. 편을 이용하여서 올리기도 하며 둥근테를 이용하여 올리기도 하고 땅아서 올리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의 한 지방에서는 끈끈한 액체를 이용하여 머리를 고정시키기도 하였다. 수발 형태에서도 보여졌듯이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세 민족은 그들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에 따라 고유의 복식 문화를 발전시켰다.

19세기 말 -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와 한복에 중절모를 쓰는 의복 양식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이 관모는 다른 의복보다 사회적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한다. 정치적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동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발형태와 백러시아의 수발 형태가 다른 것과 같이 관모의 형태도 각기 민족마다 그들 각자의 민족발전의 배경인 기후적 배경, 자연 환경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역사적, 기후 풍토적 배경에 따른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세 민족에서 발생한 여성관모의 특징적 형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Ⅲ. 東 슬라브 민족 여성의 頭飾

관모는 재료와 제조방법 그리고 심미적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였다. 동 슬라브 민족의 여성관모는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과 심미적 기능인 관모의 일반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종교적, 마술적인 역할도 수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

8) 신약성서 고린도 전서 11장 5-6절

9) Николаева Т.А.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Киев, 1987, p. 71.; Русские исторические одежды от X до XV века. Составлены и рисованы С. Стрекаловым, СПб., 1877, вып. 1. p.4.

10) Лебедева Н., Маслова Г., Рус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XIX - нач. XX вв., Русские историко -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атлас М., Наука, 1967, p. 226 (Lebeleva N., Maslova G., The russian national clothes 19th - the early 20th C. Moscow, 1967, p.226)

11) Молчанова Л. А,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Белорусов, М., 1968, p.165.

혼여성은 반드시 관모를 착용하여 두발을 가리웠다. 이와 반대로 미혼여성은 두발을 자유로이 보일 수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 동 슬라브 기혼 여성 관모와 미혼 여성의 관모에 확실한 형태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미혼여성의 관모는 기혼여성의 관모에서 모정이 열린 형태로 변화시킨 관모가 주류를 이루었다.

민속학자 D. K. Jelenin은 여성 관모의 형태적 측면에서 동 슬라브 민족의 여성관모를 크게 플라토크(платок), 철페쯔(чепец), 샤프까(шапка) 미혼녀의 베네쯔(девичий венец) 4종류로 분류하였다. (플라토크는 스카프와 같은 정사각형 천이나 얇은 가제와 같이 비치는 천 - 면, 실크, 아마로 만든 긴 직사각형 천으로 머리를 두르는 러시아 지역 및 동유럽 지역에서 널리 착용되는 頭飾이다. 우크라이나 전통 복식과 함께 머리에 걸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둘러서 착용한 관모를 샤프빠눅(сярпанок)이라 하였으며 백러시아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샤프빠나, 뽀블쨌야 민족들중 마리 측은 슈아르뽀(шарпан)이라고 하였다. 철페쯔는 두발을 정리해 주거나 다른 관모의 기초를 잡아주는 모자로 주머니와 같은 형태의 모자이다. 샤프까는 틀을 만들어 고정된 형태가 잡혀있는 두식을 가리킨다. 베네쯔는 머리테나 관형의 두식을 의미하며 특히 미혼녀의 베네쯔는 그 특징대로 정수리가 열려있는 형태이다.) 이 4가지 형태의 관모는 동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혼, 미혼 여성관모의 공통된 형태이다.

1. 러시아 미혼녀 및 기혼녀의 頭飾

동 슬라브민족(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여성관모의 가장 큰 특징은 미혼녀의 頭飾과 기혼녀의 頭飾이 반드시 구분되어 착용되었다는 점이다. 미혼녀의 머리관모의 특징은 머리 위를 열어 놓

는 것이다. 가장 권위 있는 슬라비안 복식 연구자인 마슬로바(Маслова, Г.)는 동 슬라브 민족 미혼녀의 쓰개를 세분하여 7가지로 구분하였다.¹²⁾

- a) 긴 수건 모양의 아마포 머리 수건형(полотенце) - 쉬린까(ширинка), 나미트까(наметка), 나묘트까(намитка)
- b) 나무껍질이나 마분지로 만든 테형(обруч) - 나로벤(налобень), 베눅(венок), 베레냐스까(перевязка)
- c) 여러 가지 재료의 巾형(перевязка) - 빠냐스까(повязка), 렌따(лента), 빠첼록(почелок), 졸라트누하(золотуха)
- d) 관형(венец) - 꼬루나(коруна), 출까(челка), 레훼지(рефель), 랑스까(ряска), 골로베네쯔 등(головедец и др.)
- e) 조화로 장식한 관형(венок из искусственных цветов)
- f) 스카프형(платок) - 뽀라톡(пластик), 후스트까(хустка), 코신까(косинка), 화트까(фатка) 이 드.)
- g) 바잔 깔팍(колпак вязанный)

이와 같이 동 슬라브 민족의 미혼녀는 여러 모양의 관모를 착용하였다. 이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땀은 머리채 장식이다. 긴 천이나 끈, 리본 그리고 삼각형모양이나 금수를 놓아 장식한 하트 모양의 천 등 여러 다른 모양의 천으로 땀은 머리를 장식하였다. 특히 북러시아 지방은 금수나 진주 장식을 하여 매우 화려하였다. 이 지방의 복식은 러시아의 전통 복식의 대명사로 알려져있다. 화려한 형태의 관모나 그의 장식은 동슬라비안의 풍부한 감성을 잘 대변해 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슬라브 민족 미혼녀는 머리를 폭이 좁은 천이나, 가는 줄, 리본, 삼각형 등 여러 모양의 천, 금사나 구슬로 만든 술등 여러 모양의 땀기와 함께 땀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9세기까지 땀기-땀은 머리를 장식하는 장

12) Лебедева Н. Л., Маслова Г. С., Русская крестьянская одежда XIX-началаXXвека. p.226.

신구-가 보존되어 미혼녀의 머리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키스니끼(кисники)라 이름하는 형형색색의 리본으로 땀은 머리를 묶었다. 동슬라브족의 수발양식은 수발형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 13세기 여성의 보편적 수발양식은 둥근 금속 머리띠를 하고 피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분발굴에 의해 14세기 이후에는 미혼녀의 수발형태로 변발이 발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¹³⁾ 변발의 발달로 폭이 좁은 천이나, 가는 줄, 리본, 꿰매 만든 삼각형모양의 장식, 금사나 구슬로 만든 술등 다양한 모양의 수발 장식을 사용하게 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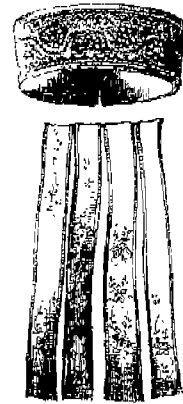
Романюк М. Ф. Беларуская народная адзенне 1981.



<그림 1> 딸은 머리 장식

Рус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стюм, 1998, p.132

동 슬라브 민족 미혼녀의 관모중 가장 보편적이며 특징적인 것은 테형과 건형의 머리띠와 왕관형 관모이다. 테형의 페레바스카는 19세기까지 전해진 모든 슬라브민족의 공통된 관모이다. 특히 남러시아 서쪽-오네기강 유역의 북쪽에서는 아름다운 진주 장식의 페레바스카(перевязка)가 미혼녀의 관모로 널리 쓰여졌다(그림 2).



<그림 2> 페레바스카 (перевязка)

Рус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стюм, 1998, p.132

미혼녀의 관모 중 조화로 장식한 베녹(венок)은 9세기에도 존재했던 테형 관모이다. 동 슬라브 민족이 베녹에 생화, 잎사귀, 나무 가지나 풀들을 장식하였는데 이것은 고대와 중세의 루시(러시아)에서 있었던 자연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봄의 이교도적인 의식의 영향아래 이루어졌다고 한다(그림 3).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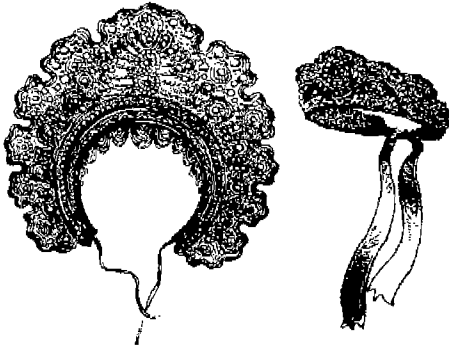
<그림 3> 베녹(венок)

Рус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стюм, 1998, p.44

13)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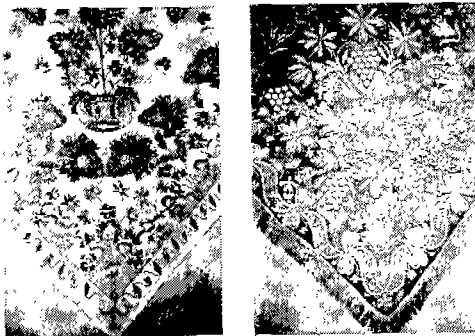
14) Ibid, p.227.

상당히 화려한 미혼녀의 관모인 베네쯔(венец)는 자작나무 껍질이나, 나무 내피를 이용해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베네쯔는 형태적으로 두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실린더 모양의 베네쯔와 윗 부분이 톱니 모양을 가진 왕관 형의 베네쯔가 있다(그림 4).



<그림 4> 러시아의 베네쯔(венец)
Рус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стюм, 1998, p.42

수건은 여성 관모의 기본형이다. 수놓은 기다란 이마나 手織의 무늬 있는 비단, 리본으로 만든 이마를 감싸는 빠바스카는 미혼녀의 관모로 이용되기도 한다. 동 슬라브 민족 미혼녀의 관모인 무늬 있는 비단으로 만든 리본이나 스카프(플라톡 платок)는 고대 머리 수건형 관모의 후기 형태이다(그림 5).



<그림 5> 러시아의 플라톡(платок)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в собр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музея Л, 1984

꽃으로 만든 머리띠와 함께 러시아 지역 미혼녀의 대표적인 관모로서 갈팍(колпак)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 지역과 백러시아 지역 일 부분에서도 널리 착용되었다. 특히, 바잔 갈팍(колпак вязанный)은 북동쪽 볼가강 유역에서 착용되었다(바트스키(Вятский)지역, 볼가강 하류지역 등).

B. Adler는 갈팍을 추바쉬족의 모자라 하였고,¹⁵⁾ N. I. Smirnof(Н. И. Смирнов)는 우드무르족(удмуртский) 未婚女의 모자라 하였고.¹⁶⁾ 여러 연구를 살펴볼 때 러시아 지역의 갈팍은 타타르족에게서 직접 또는 우드무르트족(удмурт) 등의 다른 민족을 통하여 타타르 복식이 전해져 발달된 모습이라 믿어진다.¹⁷⁾ 다시 말해서 갈팍(колпак)은 카잔의 타타르족 미혼녀의 관모이다.

N. I. Vorobieff(Н. И. Воробьев)은 전통적인 고대 갈팍이 19세기의 후반 1870년대에도 존재하였다 한다. 바잔 갈팍은 얇은 니트로 만들어 졌으며 60cm 길이로 모자를 머리에 쓰고 남은 끝자락은 뒤쪽으로 떨어졌다. 갈팍의 원형은 하얀 양말을 짜는 실로 짠 1m 남짓의 길이의 주머니와 같은 모양에 끝에는 술을 달았다. 이마 쪽에는 술이나 장식 끈으로 장식되었다(그림 6). 또한 N. I. Vorobieff(Н. И. Воробьев)는 갈팍이 높고 단단한 관모에서 변화되어 왔다고 추정한다.



<그림 6> 갈팍(колпак)
Рус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стюм, 1998, p.122

15) Адлер Б., Коллекция Сиклера. "Казанский музейный вестник", 1922 NO. 2, p.41.

16) Смирнов И. Н., Вотяки. Историко -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Казань, 1890, ИОИЭЗ, т. 8, p.95.

17) Ibid

19세기 초 갈빡이 사라지기까지 미혼모의 관모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쓰여졌다. 이렇듯 갈빡은 19세기초까지 未婚女의 관모로서 러시아내에서 넓게 쓰여졌다.

기혼녀는 2가닥의 땀은 머리채를 머리 뒤쪽에서 쪽을 지었다. 이 머리 모양은 러시아의 농촌에서 기혼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다른 머리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꼬아서 머리 앞부분에 작은 다발을 만들었다. 이 수발 형태는 2갈래로 땀아 머리 뒤에서 쪽을 진 형태보다 고대 지역인 즉 오를노프스키(Орловская), 트베르스카야(Тверская), 아르한겔스카야(Архангельская) 등의 지역에서 보여진다. 변발 외에 기혼녀의 수발형태는 머리카락을 철패쯔(чепец), 키발까(кибалка)라 하는 모자 밑에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다. 동슬라브민족은 전통적으로 기혼녀가 머리를 보이는 것을 禁忌로 하여 반드시 머리위에 관모나 쓰개를 착용하였다.

동슬라브족의 기혼녀의 관모는 미혼녀의 관모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 발전되었다. 기혼녀가 머리카락을 내보인다는 것은 禁忌로써 수치로 여겨져 반드시 머리를 천이나 수건, 관모 등으로 가렸다. 11-12세기에서부터 쓰개는 전 슬라비아인의 관모로 정착되었다. 이들은 직사각형 모양과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뉘어진다.¹⁸⁾ 직사각 수건형의 여자 쓰개는 나묘트까(наметка), 페레미트까(перемитка), 나미트까(намитка) 등이 있다. 미혼녀의 베네쯔에 수건형의 관모(повойник) 덮어 머리카락을 가리면 그 자체가 기혼녀의 관모가 된다. 그러므로 많은 미혼녀의 관모에 머리카락과 정수리를 가리워서 기혼녀의 관모로 사용하였다.

미혼녀와 기혼녀는 관모와 그의 장식으로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여건을 표시하였고 연령과 가

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들은 첫아이를 낳고야 삼형태의 키취까(кичка)나 수건형 관모인 빠보이넉(повойник)을 착용하였다. 노년에는 뿔모양의 높은 관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몇몇 의례용의 아름다운 까꼬쉬넉(кокошник)은 결혼한 지 1년된 새댁들만 착용하기도 하였다. 머리모양이나 관모를 바꾸어 착용해야 될 때 반드시 특정한 의식을 가지게 된다¹⁹⁾.

관모의 형태는 대개 동, 식물의 모티브를 따서 만들어 졌다. 로가(рога)라는 관모는 동물의 뿔 모양을, 사로까(сорока)는 새의 모양을 모방한 것이라 한다. 이것은 고대 관모의 형태의 특징이고 여러 민족의 공통된 심미관이라 볼 수 있다. 수건형의 여성 관모가 전 동 슬라브 민족의 관모라면 동물의 뿔모양등의 과장된 형태의 관모는 '러시아'의 관모라고 말할 수 있다²⁰⁾. 뿔모양의 관모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관모의 뿔이 아기와 엄마를 나쁜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이라고 믿었다. 특히 출산시에 뿔모양의 관모가 사악한 눈동자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이라 믿었다. 토하르라는 민족은 이 뿔의 숫자가 남편의 숫자를 가르켰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로가(рога)-뿔 모양의 관모-는 2개의 뿔모양을 가지고 있다. 뿔 모양의 관모는 마리족이나 모르드브족과 코미 카펠족과 같은 핀-우고르족에서 많이 보여진다. 2개의 뿔모양의 키취까의 출현은 오키강유역의 추드족의 슬라브 민족으로의 동화되던 시기인 10-13세기로 본다²¹⁾(그림 7).

2개의 뿔을 가진 관모로 남러시아지방에 널리 착용된 관모의 이름은 키취까(кичка)이다. 키취까(кичка)는 천으로 누벼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 2가지로 나뉜다. 모자의 뿔은 나무껍질로 만들어 졌으며 그 높이만도 20cm가 넘었다. 19세기에는 뿔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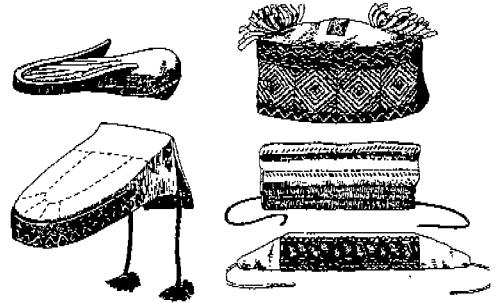
18) Николаева Т. А.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Киев, 1987, p.246.

19) Лебедева, И., Маслова, Г., Русская крестьянская одежда XIX - начала XX в., p.228

20) Ibid. p.229.

21) Монгайт А. Л., рязанская земля. М., 1961, p.139.

의 관모를 착용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거나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허락하지 않았다. 새로운 모드와 현대화의 흐름은 뿔모양의 키취까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높이가 낮아지고 뾰족한 끝부분이 뒤로 향하게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이 관모들을 키취카(кичка), 로가(рога), 로쥬끼(рожки), 칼라또프카(колотовка)로 불렀다.



<그림 8> 러시아의 끼취까와 사로까(кичка и сорока)
Н. И. Лебедева и Г. С. Маслова, Русская крестьянская одежда XIX-началаXXвека как материал к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народа p.24



<그림 7>러시아의 뿔모양관모

Д. К. Зеление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1991, p.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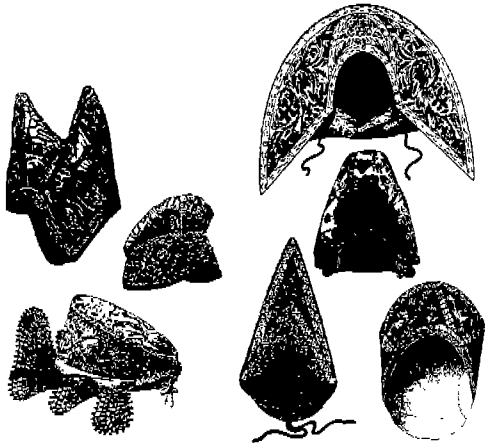
기혼녀의 사로까(сорока)는 키취까(кичка)를 여러 가지 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덮어씌운 것으로 키취까(кичка)의 형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로까(сорока)라는 이름은 동명의 새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²²⁾. 사로까(сорока)는 북 러시아보다 러시아의 남쪽 지방에 퍼져있다(그림 8).

러시아의 가장 특징적이고 아름다운 관모는 역시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일 것이다.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은 러시아의 전역에 널리 퍼져있으나 북쪽 아르한겔 지방의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은 화려한 장식과 부채모양의 독특한 형태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이 지방의 관모와 의복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민속의상으로 소개되어 지고 있다. 키취까가 농촌의 관모라면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은 도시의 부유층의 관모였다. 지방에서는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을 가진 여성은

마을의 한, 두 명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혼인 때만 착용하였다.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은 진주나 금, 은사,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을 형태별로 구분하면 북서지방의 방울 장식이 있는 외뿔 까꼬쉬넵과 중앙 러시아 지방의 외뿔모양의 까꼬쉬넵(кокошник), 남서러시아의 안장모양의 까꼬쉬넵(кокошник), 남부러시아의 낮고 모자 윗부분이 타원형이며 귀덮개가 있는 까꼬쉬넵(кокошник), 부채모양의 까꼬쉬넵(кокошник)과 원통모양의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이 있다.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은 러시아의 북서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이 있다. 다채로운 장식으로 그 아름다움을 더욱 드러내었다. 하얀 구슬, 얇은 유리조각, 자개, 강물에서 나는 진주 등을 모자 위에 섬세하게 장식하였다. 특히, 진주장식은 숙련된 솜씨와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장식이었다. 값비싼 재료와 노련한 수공을 요구하는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은 그 가격이 무척이나 비쌌다(그림 9).

러시아의 여성관모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하다. 이런 관모의 발전은 기후적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영하 40도의 북러시아 지방에

22) Зеленин. Д. К.,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М., 1991, p.259.



<그림 9> 러시아의 까꼬쉬넵 (кокошник)

Н. И. Лебедева и Г. С. Маслова, Русская крестьянская...
p.26-27.

서의 관모는 필수적인 복식이다. 또한 남쪽 러시아 지방의 관모에는 인접한 민족의 영향으로 동양적 요소가 많이 있다. 러시아 관모의 특징은 섬세하고 화려한 진주, 보석과 금은사의 화려한 장식이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모인 까꼬쉬넵(кокошник)은 이런 러시아 관모의 특징을 힘껏 자랑한다. 유라시아에 걸쳐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동양적인 모티브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장식이 러시아 민족 여성관모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2. 백러시아 미혼녀 및 기혼녀의 頭飾

백러시아의 전통 여성 두식과 관모 또한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 되었다. 20세기초 까지 백러시아의 미혼녀들은 대부분 변발을 하였다. 변발의 끝은 까스니끼(каснікі)라는 리본으로 장식하였다. 까스니끼(каснікі)는 여러 색상의 얇은 리본이나 줄로 변발의 끝 부분에 놓고 같이 땀아 내리기도 하였다. 백러시아 여성의 머리모양은 지리적 특성상 러시아

여성과 같이 한 줄로 머리를 땀아 내리거나 우크라이나 여성과 같이 두 줄로 땀아 내렸다. 변발한 머리채는 대부분 등 쪽에 내려뜨렸지만 우리나라의 엷은 머리와 같이 변발을 머리둘레를 감아서 관모양의 머리모양을 만들기도 하였다.

백러시아의 수도인 민스크 근교에서 12세기 여성의 묘가 발견되었다. 그 묘에 안치되었던 여성의 머리주위에서 변발이 놓여있었다²³⁾. 이것은 러시아의 변발의 역사보다 오래된 것으로 러시아의 문화와는 다른 백러시아 고유의 문화형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 해준다.

미혼녀의 머리형태와 관모가 기혼녀의 것과 구별되는 원칙은 러시아와 동일하다. 기혼녀는 반드시 머리카락을 감추어야 한다. 여기서 기혼녀란 아이를 낳은 부인을 말하고 있는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낳으면 기혼녀의 두발과 관모를 착용하는 원칙을 강요받게된다. 19세기 중엽까지 백러시아 서부의 그로드나라는 지방에서는 未婚母의 변발을 금지하였다²⁴⁾.

미혼녀의 관모도 기혼녀의 관모와 착용방법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녀의 전형관모인 나미트까(намітка), 쉬린까(шырынка), 스긴다취까(с кідачки)는 긴 직사각 수건형 관모로써 머리에 두르고 머리 뒤쪽에서 묶었다. 미혼녀의 관모의 특징을 살려 머리 정수리 부분을 열어놓았다. 예쁘게 무늬를 넣어 잔 수건의 양끝을 어깨나 가슴에 늘어뜨렸다. 19세기에는 결혼식의 관모로써 사용되었다.

백러시아의 널리 착용된 미혼녀의 관모로는 조화로 장식한 베눅(венок)이 있다. 6-8cm 높이의 자작 나무나 다른 나무로 만든 테의 안팎을 천으로 씌우고 바깥쪽 천 위에 무늬있는 비단을 덧붙이거나 얇은 금속 조각이나 금, 은박을 붙였고 조화를 장식하였다. 조화로 장식한 베눅(венок)에 가지나 잎으로

23) Молчанова Л. А.,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Белорусов М., 1968, p.165. (Molchanova LA., The material culture of Belarusian, Moscow, 1968, p.165.

24) Зелени Д. К., Описание рукописей ученого архива имп.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ып. 1. p.437.

장식하거나 유리 구슬을 달기도 하였다. 베녹(венок) 뒤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리본을 달았다. 그러나 때로는 베녹(венок) 뒤에 리본대신 수건을 달기도 하였다. 이 관모는 조선시대 여성의 관모인 아얌을 연상시킨다²⁵⁾(그림 10).



<그림 10>백러시아의 베녹(венок)

Романюк М. Ф. Беларуская народная адзенне 1981

20세기에는 혼인시에 어느 형태의 혼인 관모이든 그 위에 부알(вуаль)이라는 땅 끝까지 끌리는 긴 천을 달았다²⁶⁾. 백러시아 남쪽의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고립되어 있는 지방인 폴레시아(Полесья) 지방은 신부의 관모와 중매인의 관모가 동일 하였다. 라도스토프 드로기친지역의 중매인의 관모는 나메트카(наментка) 위에 모자를 쓰고 모자 뒤쪽에 리본을 달아 장식하였다. 뽀비치에(Повитье) 지역에서는 나메트카(наментка) 위에 여러재료로 수를 놓거나 꽃으로 장식한 빠바스카(повяска)를 착용하였다. 모자 위에 작은 주름을 잡아 장식하였다. 깃털 장식을 백러시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다. 밝은 색깔로 물들인 깃털을 나메트카(наментка)에 고정시켰다. 깃털 외에 앞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혼인시에 신부는 땅은 머리를 풀고 기혼녀 관모를 착용하는 의식을 치루었다. 백러시아의 기혼녀는 머리를 땅지 않고 두 갈래로 나누어 딱딱한 머리 띠에 모발을 둘러 머리 위에 얹었다. 그러나 몇몇 지방에서는 이마 위에 쪽을 지어 없었다²⁷⁾.

백러시아를 비롯한 동 슬라브 민족의 기혼녀는 모발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모자를 썼다. 이 풍습은 외출 시 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계속되었다. 집안의 가사 일을 돌볼 때 썼을 간편한 관모로 철페쯔(чепец)라는 관모가 있다. 이 관모는 모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모발을 정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모발을 정리하여 머리에 올리고 철페쯔(чепец)를 써서 두발을 고정하였다. 철페쯔(чепец) 위에 다른 관모를 쓰기도 하였다. 나메트카(наментка)를 철페쯔(чепец) 위에 두르기도하였는데 이때는 철페쯔(чепец)의 가장자리부분에 수를 놓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철페쯔(чепец)는 가장 기본적인 모자이면서 또한 의례용 모자로 사용하게 되었다. 철페쯔(чепец)중에는 귀가 달려서 턱밑에서 묶어 고정 시키는 형태의 것도 있었는데 그것을 카뿌뚜르(каптур)라고 하였다.

백러시아의 기혼녀의 관모로써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나메트카(наментка)이다. 나메트카(наментка)를 다른 이름으로 나미트카(намітка), 빠보이닉크(повойнік), 플랫폼(плат)라고 하였다. 나메트카(наментка)의 오래된 이름은 우브루스(убрус)라고 하며 11세기의 성화에도 이 관모가 묘사되어있다.

백러시아의 나미트카(намітка)는 세로 50cm, 가로 5m정도의 아마, 목면으로 만들어졌다. 천의 가장자리는 여러 문양으로 장식하였다.²⁸⁾ 이 수건형 머리 장식은 다른 머리관모와 함께 쓰여졌다. 고유한 지역적 특징은 묶어 고정시키는 방법과 나머지

25) Молчанова Л. А.,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Белорусов, изд. Наука и техника. М., 1968, p.166-167.

26) Ibid. p.167.

27) Маслово Г. 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русских, украинцев и белорусов, p.658.

28) Украинское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ткани и вышивки, Киев, 1960, p.319.

천 끝을 내려뜨리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이런 착용 방식은 백러시아 지방에만 30 가지가 넘는다. 천의 두끝을 뒤통수에서 묶거나 핀으로 고정시키기도 한다. 나미트카(намитка) 를 혼인 예식에 착용하고 그 이후 부녀자는 이 머리 수건 없이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림 11).



<그림 11> 백러시아의 나미트끼 (намитки)
Романюк М. Ф. Беларуская народная адзенне 1981.

러시아와 백러시아의 정사각형형의 머리 수건으로 빨라톡(платок)이 있다. 이 빨라톡(платок)은 백러시아에서는 후스트까(хустка)라 하였다.

수건형 머리 장식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머리 쓰개라는 것은 그 이름이 우브루스(убрус)라는 것에서 증명이 된다. 우브루스(убрус)란 수건이란 뜻의 고대러시아어이다. 중세 아랍에도 알려졌듯이 11세기 여러 러시아의 고대 문서 자료나 유적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다²⁹⁾. 특히 스몰렌스크의 오를르 지역과 백러시아 민족의 머리 장식은 고대사회에 관해서 잘 말해 준다. 더욱이 고대 러시아 수건형 머리 장식에서의 문양은 고대 핀 족과 고대 터키와 불가강 유역 민족들과의 공통적 연관성을 가

지고 있다.

백러시아 여성의 전통 관모 중 독특하고 특징적인 頭飾으로 갈라바취까(галавачка)가 있다. 이 頭飾은 뚜껑이 없는 단단한 구조물로 만든 높이 8 - 15cm, 너비 10 - 17cm의 모자에 철패쯔(чепец)를 덮어썼다. 이런 기본틀위에 얇은 나미트까 (намитка)같은 긴 천인 길이 3 - 5m, 넓이 50 - 60cm인 세르판(серпан)으로 감았다. 이 긴 천을 턱밑을 돌아 감싸고 남은 부분을 등쪽에 늘어뜨렸다. 이 모습이 터번과 비슷하다. 이렇듯 머리 수건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동유럽에서 넓게 퍼져 있다. 저명한 동 슬라브민족의 인류학자이며 복식 연구자인 D. K. Jelenin(Д. К. Зеленин)은 이 머리 수건을 슬라비아인 여성頭飾의 고대 형태로 보고 있고 슬라브민족 가운데 널리 퍼져있다고 하였다³⁰⁾(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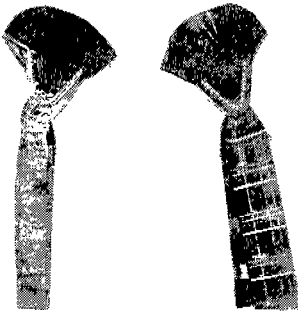
<그림 12> 백러시아의 갈라바취까 (галавачка)
Романюк М. Ф. Беларуская народная адзенне 1981.

백러시아 지방의 독특한 관모로 까빠르(капар)가 있다. 귀막이가 있는 머리에 딱 맞는 등근모양의 관모로 귀막이 끝에 길고 넓은 땀기를 꿰매어 늘어뜨렸다. 이 관모를 착용한 모습이 앞땀기를 늘어뜨

29) Маслова Г.,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русских украинцев и беларусов вXIX - нач. XXв. // восточны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Тр. ИЭ АН СССР, т.31. 1956, pp.660-661.

30) Зеленин Д. К., Женские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восточных (русских) славян, "Slavia", 1926. , No. 2 -3 p.318.

런 모습과 흡사하다. 까빠르(капар)는 백러시아 특유의 관모중 하나이다(그림 13).



<그림 13> 까빠르 (капар)

Романюк М. Ф. Беларускае народнае адзенне 1981

백러시아의 관모의 특징은 소박한 형태와 장식에 있다. 관모의 장식은 대부분 수를 놓거나 아름다운 천이나 색동 천으로 이루어졌고 간혹, 풀이나 깃털 또는 조화로 장식하였다. 안정되고 조화로운 모습의 관모는 소박하고 조용한 백러시아 민족의 품성을 잘 표현해 준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타타르(몽고)의 직접적 지배를 피했고 근접한 발틱과 핀족의 영향을 받았으며 폴란드영토의 한부분으로 카톨릭 문화가 존재하는 곳으로 서유럽의 길목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징을 가진 백러시아의 관모는 아시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다른 두 나라의 관모의 장식과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드네프르강이 지나는 백러시아의 남서부 지방의 관모인 갈라바취까는 터번 모양과 유사하여, 드네프르강의 유역을 따라 이루어지는 무역을 통해 아시아 민족의 복식 문화가 백러시아에 유입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우크라이나 미혼녀 및 기혼녀의 頭飾

수발형태와 관모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미

혼녀와 기혼녀의 수발형태의 차이는 곧 관모의 형태의 차이를 말해준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미혼녀의 관모와 기혼녀의 수발형태가 뚜렷히 구분되었다.

오래전 우크라이나의 미혼녀는 피발을 하였으나, 이후 변발이 우크라이나 미혼녀의 대표적인 수발양식이 되었다. 지역에 따라 1줄 또는 2줄로 땀아 내렸고 빠돌(Подол), 뿔따비쉬나(Полтавщина) 지역에선 여러 가락으로 땀아 내렸다. 드네프르 강 좌측편 지역(на лево-бережном Поднепровье) 未婚女는 축제때 한 가닥으로 땀아 내렸고 평상시에는 두 가닥으로 땀아 내렸다. 반면으로 드네프르 강 우측편 지역(на правобережье)에 사는 未婚女들은 항상 2가닥으로 땀아 내렸는데 축제시 땀은 머리채를 등위로 내려뜨렸고 평상시에는 이 2가닥의 머리채를 머리 위에 올려 고정시켰다.³¹⁾ 몇몇 지역에서는 3-6갈래에서 시작하여 24갈래까지의 많은 갈래의 머리를 한 줄로 땀아 내렸다³²⁾. 이 변발은 매듭과 같은 형태이다. 따비쉬나(Полтавщина) 지방에서는 한 줄의 굵은 변발과 주변의 작은 여러 줄의 변발을 느려뜨리기도 하였다³³⁾. 쥐토미르쉰(Житомирщин) 지방에서는 2줄의 변발을 하였다. 각각의 변발에 4-8줄의 땀은 머리가닥을 모아 한줄로 땀아 내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9세기까지 땀기와 같은 좁고 긴모양의 천인 기스니끼(кисники)라 하는 색깔리본으로 땀은 머리를 묶어 땀은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가 未婚女의 머리 장식으로 사용되었다.³⁴⁾

19세기에 들어와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 유역 지방의 머리띠나 끈 모양의 관모는 머리 들레를 싸서 뒤에서 묶고 풀어진 머리를 가렸다. 이 때 위에 여러 색깔의 천이나 끈을 박아서 늘어뜨렸다. 엮어 만든 머리띠는 땀은 머리를 단순히 리본이나 꽃으로 덮어서 장식한 것이 발전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31) Николаева Т.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Киев, 1987. p.71.

32) Быт малорусского крестьянина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Полтавской губерни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Спб., 1859, вып. 3 p.42.

33) Николаева Т. А.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Среднее Поднепровье). изд. Наука и думка, Киев, 1987, p.71.

34) Украинское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одежда" Киев, 1961, альбом, pp.27-28.

는 견해가 있다.³⁵⁾

우크라이나 미혼녀의 대표적인 관모는 렌파(лента)이며 축제때는 얇은 베녹(венок)을 착용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중부 지방에서는 뒷부분은 큰 꽃으로 장식하고 앞쪽은 작은 꽃으로 장식한 베녹(венок)을 착용하였다. 겨울에는 꽃대신 색깔을 들인 깃털로 장식하였다.

베녹(венок)은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혼녀의 대표적인 관모이다. 백러시아의 베녹(венок)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는 베녹(венок)을 생화로 장식하였다. 이것은 기후풍토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비교적 따뜻한 우크라이나에는 동토의 땅 소련의 곡창지대로 유명하고 크고 작은 꽃이 풍부하다. 우크라이나 미혼녀들은 밝은 색깔의 리본(렌파)들을 머리둘레에 묶고, 나머지 자락을 길게 느려뜨려곤 하였다. 이 리본 위에 베녹(венок)과 같이 꽃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밝은 색깔의 끈이나 디테일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관모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미혼녀의 두식 중에서 단단한 틀이 있는 관모는 기혼녀의 관모와 형태가 비슷하나 정수리 부분이 열려있다. 혼인 후에는 관모의 모정을 막아 사용하였다.

수건형 관모 또한 기혼녀의 것과 흡사하지만 착용방법에 있어서 정수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구별된 착용을 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스카프형 관모를 머리에 두르고 앞부분에서 묶고 그 끝을 세웠다.

우크라이나의 기혼녀도 러시아와 백러시아의 기혼녀와 같이 머리카락을 감추었다. 기혼녀가 머리카락을 보였을 시에는 그해 수확이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다. 18세기의 불란서 여행가 I. Koks는 우크라이나의 기혼녀들은 두갈래로 머리를 땅아 느려뜨리고 그 위에 수건을 썼다고 하였다³⁶⁾. 그러나 19-20세기로 오면서 머리를 쪽을 지어 관모속에 넣어서 정리하였다.

동 슬라브 민족 여성의 기본적인 두식인 수건형 관모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널리 착용되었다. 나미트끼(намітки)나 페레미트끼(перемітки)라는 이름으로 폭 0.5m, 길이 5m정도의 린넨으로 만든 직사각형 수건형태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관모와 함께 착용하였다. 동 슬라브 민족의 중요한 여성관모인 스카프형태의 플랴트까(платка)도 우크라이나 기혼녀의 일반적인 수식이었으나 이들의 착용법과 매듭법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자유분방한 민족성과 따뜻한 기후 풍토의 영향을 보여준다. 턱 밑이나, 턱밑을 지나서 목뒤에서 매듭을 지어 머리와 목을 감싸주는 형태로 착용하는 러시아와 백러시아와는 달리 머리 위나 이마위, 또는 뒷통수에 미듭을 짓는다. 그러나 이런 풍습은 백러시아의 국경지대나 러시아의 남쪽 지방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그림 14).



<그림 14> 우크라이나의 플랴트록 (платок)

Николаева Т.,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Среднее Поднепроа), 1987, p.138

모자의 형태의 관모로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단한 틀이 없이 머리카락을 정리 하는데 사용되었던 스보르닉(сборник)과 단단한 틀이 있는 오츨까(очипка)이다. 스보르닉(сборник)이나 부드러운 오츨까(очипка)는 플랴트까(платка) 밑에

35) Николаева Т. А.,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Киев 1987. p.71.

36) Матейко К. І.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p.20.

졌으나 이것이 사라지고 단단한 틀이 있는 오칩까(очипка)를 비단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³⁷⁾ (그림 15).



<그림 15> 우크라이나의 스보르닉과 오칩까(сборник и очипка)
Николаева Т.,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Среднее Поднепроя), 1987, p.138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관문인 터키와 함께 흑해를 끼고 자리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의 관문인 코카서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우크라이나의 문화는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화되어 만들어진 자신의 독특한 전통과 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온난한 기후는 우크라이나 민족 고유의 복식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미혼녀의 수발형태에서 다른 동 슬라브 민족보다 다양한 모양의 변발의 발전은 비교적 다양한 문화가 이 지역에 흘러왔음을 암시하게 한다. 온화한 기후가 다양한 관모 형태의 발전보다 풍부한 장식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관모의 크고 밝은 색깔의 아름다운 꽃무늬와 꽃장식은 우크라이나 인들이 자연 속에서 받은 심미관을 표현한 것이었으리라 보여진다.

IV. 요약 및 결론

동 슬라브 민족의 풍부한 감성은 독특한 형태와 화려한 장식의 민족 고유의 관모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타 민족과의 긴밀한 상호관계는 전통 관모의 변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러시아의 민속학자 D. K. Jelenin은 동 슬라브 민족의 여성관모를 형태적 측면에서 크게 플라톡(платок), 철페즈(чепец), 샤프까(шапка) 미혼녀의 베네즈(девичий венец)로 분류한다. 이 4종류의 관모는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의 기본적인 여성 관모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각각의 민족의 기후와 지리적 영향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따라 관모의 형태와 장식이 다르게 발전하였다.

-플라톡(платок)에 있어서 러시아의 플라톡(платок)은 화려한 장식과 소재를 사용한 반면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플라톡(платок)은 보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실용적이다. 발틱과 핀족의 영향을 받은 백러시아의 플라톡(платок)은 격자무늬의 천으로 만들었으며 실용적이며 방한이 용이한 형태로 발달되었다. 우크라이나 지방의 플라톡(платок)은 그 착용 면에서 다른 두 나라보다 개방적이다. 이것은 따뜻한 기후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철페즈(чепец)는 러시아에서는 빠보이닉(повойник)이란 이름으로 남쪽러시아 지방에서 착용되었으며 끼취까(кичка)의 내부 기초모자로서 착용되었다. 백러시아에서는 철페즈(чепец)가 기혼녀의 가장 중요한 관모로서 수발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거의 모든 관모의 기초관모로서 착용되었다. 색동천이나 레이스뜨기로 만들어지기도하여 신축성이 있고 실용적이며 아름다운 철페즈(чепец)가 널리 쓰여졌다. 우크라이나의 철페즈(чепец)는 스보르닉(сборник)이나 오칩까(очипка)란 이름으로 불려졌다. 하지만 오칩까(очипка)는 단단한 틀이 있는 모자의

37) Николаева Т. А.,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p.73.

형태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 베네쯔(венец)는 미혼녀의 대표적인 관모로서 정수리 부분이 열려있는 관형 모자이다. 미혼녀의 베네쯔(девичий венец)는 각 민족에 따라 꽃과 풀과 리본으로 장식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미혼녀의 베네쯔(девичий венец)는 생화나 조화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리본도 색색가지로 늘어뜨려서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 냈다. 백러시아에서는 조화를 많이 이용하였다. 미혼녀의 베네쯔(девичий венец)는 결혼 관모로 이용되었고 이것은 미혼녀의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였다. 러시아의 미혼녀의 베네쯔(девичий венец)는 진짜 왕관과 같이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고 형태도 왕관과 같이 모정이 톱니모양인 것도 있다.

-샤프까(шапка)는 고정된 형태가 있는 모자를 의미하는데 러시아의 관모중에 까꼬쉬닉(кокошник)이나 끼취까(кичка)와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한다. 우크라이나의 오칩까(очипка)와 백러시아의 까빠르(капар)같은 관모를 말한다. 러시아의 까꼬쉬닉(кокошник)의 형태는 다양하며 어느 민족에서도 볼 수 없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의 고유한 맛을 보여준다. 촘촘한 진주장식과 크고 과장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모는 간소하며 실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외의 백러시아의 갈라바취까(галавачка)는 나무로 기본틀을 만들어 머리에 올리고 그위에 긴 천을 감아서 관모를 완성하였다. 이 관모는 동 슬라

브의 어느 민족에서도 볼 수 없는 관모로 터키나 중동의 관모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을 통한 타민족 특히 아시아민족과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고대부터 아라비아 상인들의 출입이 이어진 것을 볼 때 지리적인 배경과 더불어 민족간의 교류와 교류를 이룬 역사적, 사회적 배경들 모두 관모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의 기후풍토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화 발전된 여성 관모간의 유사성과 함께 개별성을 비교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동 슬라브족인 러시아, 백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루시로부터 시작한 공통된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까운 민족들이며 지리적으로도 서로 근접히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4가지 기본 관모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 나라간의 기후와 풍토의 차이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관모를 분화, 발전 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동 슬라브 민족의 관모는 신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기혼녀와 미혼녀의 수발양식 뿐만 아니라 관모까지 달리 하여 사회적 위치와 가족구성원 안에서의 신분을 확실히 구분하여준다(표 2 참조).

동 슬라브 민족의 여성관모 착용에 있어서 특징적인 관습으로 기혼녀는 두발을 절대로 보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해의 수확도 없을 것이고 가족

<표 1> 동 슬라브 민족의 기본 4 유형 관모와 명칭

	빨라투 (scarf형 관모)	췌베쯔 (scullcap 형 관모)	샤프까 (hat 형 관모)	미혼녀의 베네쯔 (왕관형 관모)
러시아	빨라투, 후스트까 나미트까, 베레미트까, 나묘트까	췌베쯔	키취까, 까꼬쉬닉, 로가, 사로까,로취가, 갈라또프까	베레바스까, 베눅, 베네쯔
백러시아	빨라투, 후스트까, 빨라트, 나미트까, 쉬린까, 스킨도취까, 빠보이닉, 우브르스	췌베쯔	갈라바취까, 까빠르	베눅
우크라이나	나미트까, 베레미트까, 빨라트까	스보르닉, 틀이없는 오칩까	오칩까	베눅, 렌따

<표 2> 동 슬라브 민족의 미혼녀, 기혼녀의 수발양식 비교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미혼녀	피발, 변발	피발, 변발 (한 갈래나 두갈래)	피발, 변발 (1갈래에서 여러갈래로 변발이 다양하게 발전)
기혼녀	관모로 두발을 가림	머리롤 얹고 관모로 두발을 가림	관모로 두발을 가림

들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러시아의 관모인 빨모양의 로가(рога)는 엄마와 아이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한다고도 여겨졌다. 이는 동 슬라브 민족이 두발과 관모에 대하여 실용적인 의미와 심미적인 의미 이외에 주술적이며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Арциховский А. В. Одежда, М.,-Л.: АНСССР, 1951. (A.V. Artchihovski: "The clothes", Moscow - Leningrad, Academy of Science of USSR, 1951)
2. Беларуская народная адзенне, под ред. Бондачык а В. К. _Мн.: Наука и Тэхніка, 1975. (V.K. Bondachika: "The Belarusian national clothes", Minsk, Science & Technology, 1975)
3. Домненкова Л.В. Одежда белорусско - русского пограничья кон.ХІХ - нач. ХХ вв. свете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Дис. ... канд. истор. наук -мн., 1987. (L.V. Domnenkova: "A ethnographical influences of the clothes in the territory between Russia and Belarus in the late of 19th - the early 20th century", Minsk, Ph.D. thesis, 1987)
4. Дучыц Л. У. истор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Беларуси//Несси, -1995, № 9-10. (150-151). (L.U. Duchitch: "The history of Belarusian national costume", Nessi No.9-10, 1995)
5. Зеленин Д. К. Одежда и обувь//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М., 1991. (D.K. Jelenin: "The clothes

and shoes - the Eastern Slavics ethnography", Moscow, 1991)

6. Киреева Е. В. История костюма, М., 1970. (E.V. Kireyeva: "The history of costum", Moscow, 1970)
7. Маслова Г. 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ХІХ - на ч.ХХ вв М., Наука , 1984. (G.S. Maslova: "The national clothes of the Eastern Slavics traditional celebrations and ceremonies in the 19th - the early 20th century", Moscow, 1984)
8. Молчанова Л.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Белорусов, Мн., Наука и техника 1968. (L. Molchanova: "The material culture of Belarusian", Minsk, 1968)
9. Рыбаков Б. А. Их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М., МГУ, 1984 (B.A. Ribakov: "Their history of Culture of ancient Rusi", Moscow, 1984)
10. Русский народный костюм, Л., Художник РСФСР, 1984 (альбом). ("The Russian national costume", Alburn, Leningrad, 1984)
11. Украинское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Одежда, Киев, 1961. (альбом). ("The Ukrainian national art - Clothes", Kiev, 1961)
12. Цой су-Бин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восточных славян, Монголызычных народов и корейцев: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взаимовлияние//Дис. ...канд. мн. 1999. (Su-bin Choi: "Headgears of the Eastern Slavics, Mongolians and Koreans: Mutual interactions and influences", Ph.D. thesis, 1999)

* 본문 주석 이외의 참고문헌을 표기했음